

L씨와 N씨의 외에도 O씨, S씨, W씨, X씨, Y씨, b씨, f씨, g씨, j씨 등등 역시 주택소비과정이 유사하다. 이들은 부모님을 잃거나 혹은 떠나 생활하면서도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채 소득활동을 하게 된 곳에서 주거생활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식당이나 가게 등의 뒷방과 공장의 기숙사 등지에서 다른 종업원 혹은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고용관계의 변화에 따라 주거공간의 이동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대체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이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게 되는 계기는 가정의 형성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해 보지 못한 이들 사례의 경우는 대체로 가정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불완전한 주택소비과정을 겪은 것은 상당부분 가족관계와 관련된다.

그러나 가정을 형성하지 못한 모든 사례들이 독립적인 주택소비를 하지 못하였던 것은 아니다. B씨가 결혼하지 않았지만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였다.

B씨는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고 살았다. 농사일과 노동일을 하며 부모님과 지내다가 상경한 형님을 따라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에 올라와서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였다.

반면 S씨의 경우는 B씨와는 아주 상반된 사례이다. S씨의 부모님은 1980년인 S씨가 40여세가 될 때까지 살아계셨다. 그럼에도 그동안 결혼하지도 않았고,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아주 불안정한 주택소비를 하였다.

S씨는 남한농림개발주식회사를 시작으로 건설업체, 연구소, 출판사 등지에서 일하였다. S씨가 일하였던 곳은 모두가 소규모 업체였다. S씨는 그곳에서 일하면서 생활하였고, 특별히 기숙사 등의 주거공간이 따로 있지도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일하였던 섬유업체에서는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으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서 공장에서 쫓겨났고, 기숙사에서도 쫓겨났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처음으로 보증금 200만원에 월 10만원하는 월세 방에서 살게 되었다. 얼마안가 돈이 떨어지면서 S씨는 화평교회로 옮겨 생활하였다.

따라서 대체로 결혼하지 않은 사례들은 독립적인 주택소비를 하지 않아 주거공간의 마련이 가정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하지 않았어도 부모와 같이 생활하여 혼자 살지 않았던 경우는 독립적인 주택소비를 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무주거자들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거나 결혼으로 독립적인 가정을 형성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주택소비를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26사례가 적어도 한 번이라도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주택소비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택소비의 변화과정은 여러 요인의 매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동거 등 일시적으로 가정이 형성되었다가 해체된 경우 주택소비 역시 일시적으로 나타나며, 반면 사업실패 혹은 개인적인 문제 등을 통해 더 열악한 주거공간으로 소비가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정기간 동안의 동거를 통해 주택소비를 하다가 일시적인 가정이 해체되면서 주택소비과정이 바뀌는 사례는 H씨와 G씨이다.

H씨는 중학교를 중퇴한 후 소규모로 가내에서 과자를 만드는 일을 하던

동생집에서 일을 도와주면 지내다가 23세 때부터 요꼬공장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공장에 다니면서 종업원들과 함께 방을 얻어 생활하였다. 이 일을 10년 동안 하였으나 전망도 없고 돈도 많이 받지 못해 그만두고 의료 노점을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월세방을 얻어 살았다. 약 7년 동안 장사를 하였으나 벌이가 안정적이지 못해 그만두었다. 그리고 인형공장에 들어갔다. 그리는 동안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여자와 약 7년간 동거를 하였다. 동거하는 동안 역시 월세방에서 살았다. 동거녀가 가출한 후 몸이 안좋아지면서 동생집에서 같이 지냈다.

G씨의 경우도 동거하는 기간동안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생활하다가 동거녀가 가출하면서 다시 불안정한 주택소비과정을 겪게되었다.

반면, P씨의 경우는 가정을 꾸려 자가주택까지 마련하였으나 혼자 생활하면서 더 열악한 주택소비과정을 겪었다.

P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을 제대한 후 중매로 결혼하였다. 처가가 본가보다 더 넉넉하였기 때문에 결혼할 때 처가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P씨는 부인과의 갈등으로 전세를 얻어 생활하였다. 80년대 초에 강제해직되고, 이후 사업이 점차 실패하면서 결국 보증금 500만원에 월 15만원하는 월세방으로 내려앉게 되었다. 노동일도 일거리를 잘 얻지 못하게 되면서 월세보증금을 까먹다가 결국 길거리로 나오게 되었다.

이 밖에도 U씨, V씨, Z씨 등도 유사한 주택소비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으로 독립가정을 꾸리고 그러면서 일정한 주택소비를 하게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정이 해체 혹은 위기에 빠지면서 주택소비과정이 다시 왜곡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P씨의 경

우도 결혼과 함께 자가주택을 마련하지만 아내와의 갈등으로 혼자서 생활하게 되었고, D씨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D씨는 29살에 청양에서 중매로 결혼하였다. 그 전까지는 광업소에서 일하면서 여러 곳을 떠돌았지만 결혼하면서 전파사도 차리게 되었고, 가게에 딸린 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다가 37살 되던 해에 상경하여 서울에 방 1칸짜리 전세를 얻어 생활하였다. 그러나 아내와 성격차이로 갈등을 빚다가 핫김에 가출하였다. 그리고 약 2년간 건설현장의 함바집과 사글세 방 등에서 생활하다가 집에 돌아왔으나 이미 집은 이사를 간 후였다.

이렇듯 주택소비과정을 살펴보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다가 특정 사건을 계기로 생활이 불안정해지면서 주택소비과정 역시 불안정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무주거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나 가족과의 갈등으로 주거가 불안정해지거나 아내가 죽음으로써 주거가 불안정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은 따로 존재한다⁴²⁾.

반면 무주거자가 되기 직전까지 주택소비가 일정하였던 사례도 있다. K씨가 그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K씨는 인천에서 문방구를 경영하면서 30세 되던 해 중매로 결혼하였다. 아내가 문방구에서 주로 일하였는데 거스름돈을 잘 거슬러 주지 못할 만큼 무지하여 1980년에 이혼하였다. 그 후 혼자 문방구를 경영하기가 마땅치 않아 가게를 세우고, K씨는 아버님과 함께 가게에 딸린 방 한칸에서 줄곧 생활하였다.

4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5장을 참조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무주거자들의 주택소비과정은 사회 일반가구들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의 주택소비과정이 악화되는 것은 고용과 관련된 소득활동 부문에서 가해졌던 영향에 의해 이루어졌고, 여기에 주거이외의 요인이 겹쳐지면서 무주거자가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R씨이다.

R씨는 14살 되던 해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모님이 하시던 농사를 물려받았다. 40세가 될 때까지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시골집도 있었다. 40세가 되던 해 농사짓는 것도 힘들고, 남는 것도 없어서 땅도 팔고, 집도 팔아 인천 부평으로 올라왔다. 땅을 판 돈으로 사업을 하는 동생에게 조금 떼주고, 나머지로 방 2칸짜리 전세를 얻었다. 이후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명의로 작은 연립을 구입하여 그곳에서 생활하였으나 다시 집을 팔아 트럭을 사는 바람에 월세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이후 R씨는 홀로 보증금 200만원에 월 15만원하는 월세방에서 살았다. 노동일을 하는 것도 힘에 부쳐 잘 못하게 되고, 아들이 생활비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서 보증금을 까먹게 되면서 주인으로부터 쫓겨났다.

R씨의 경우 40세에 이농하여 인천으로 올라왔다. 충남 논산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자가주택에서 생활하였으나 인천에서 올라와서는 방 2칸짜리 전셋집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이후 주요소득원인 아들 소유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월세방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결국 보증금을 까먹게 되면서 무주거자가 된 것이다. 이렇듯 무주거자가 되기까지 이들의 주택소비과정은 점점 악화되어갔다.

무주거자는 현상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곳이 없는 이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물적 개념인 주거(집, 방 등)는 단순히 물리적 의미만이 아니라 재생산의 단위인 것이다. 따라서 무주거라 함은 재생산

의 단위가 파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거가 없다는 것은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주거문제와도 관련된다.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은 이윤논리에 의해 작동되는 주택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주거입지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들이 무주거자로 전락하게 된 것을 전반적인 주거상황의 악화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빈곤계층의 주거위기는 이들이 무주거자로 전이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사업실패 등의 과정을 겪은 사례들의 경우 월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 점점 열악한 주거공간으로 바뀌게 되고, 보증금을 까먹게 되면서 무주거자가 되고 있다. 앞서 소개되었던 P씨의 경우 2번의 사업실패를 통해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월세금을 못내면서 무주거자가 되었다.

또한 비록 이들이 무주거자가 되었을지라도 주거가 접근하기 쉽다면 노숙자로 생활하지 않을 것이다. 상당수의 무주거자들에게 주거는 이들이 접근할 수 없는 비싼 상품시장에 존재할 뿐이다.

3. 가족관계의 변화 과정

1) 무주거자들은 어떻게 성장하였는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조사대상자들 중 고졸미만의 학력보유자가 그렇지 못한 사례들보다 많았는데, 조사결과 이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만한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대체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탓이기도 하지만 가정형편이 부유하였던 경우도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게 되면서 제대로 보호나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실상 빈곤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나라 근대사를 통해 볼 때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따라서 빈곤으로 인해 학력이 낮고, 그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이나 노동활동을 하게 된 것은 비단 무주거자들만의 특성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난하여도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의지가 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근현대사는 커다란 사건으로 점철되어있다. 일제시대와 해방, 그리고 민족간에 빚어진 전쟁, 전쟁이 남겨준 국토의 피해와 가난 등으로 인해 온전한 가정의 손길 아래에서 성장하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무주거자들 역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나 혹은 그외의 다른 사람들로 부터 보호를 받은 경우가 많지 않다. 양부모님이 모두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계셨던 사례는 G씨, I씨, S씨, T씨로 4 사례에 불과하였다.

양부모님이 모두 오래 살아계셨던 4 사례들은 다른 사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G씨의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G씨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으로 1990년까지 계속 농사를 지었다. I씨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운전만 약 25년에 걸쳐하여 운전에만 관한 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이다. 운전면허도 중장비면허, 대형1종면허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S씨는 집안도 넉넉하였으며, 고려대를 졸업하고, ROTC 4기로 군복무를 마치기도 하였다. T씨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에서 이발기술을 익히고 자격증까지 났으나, 전주에서 장사를 하며 생활하였다.

반면 어머니가 성년이 될 때까지 살아계셨던 사례는 B씨, Y씨, J씨, I씨 등의 4 사례였으며, 아버님이 오래 사셨던 사례는 K씨, M씨, X씨, D씨로 4 사례였다. 나머지 조사대상자들 중 고아원에서 자란 U씨, 큰댁에서 자란 L씨, N씨, 작은댁에서 자란 O씨, 오촌친척댁에서

자란 Z씨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혼자서 자라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 할만한 사례가 없이 모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지 개별사례의 측면에서 어머니가 오래 사셨던 사례 중 B씨와 아버님이 오래 사셨던 사례 중 K씨,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란 U씨만이 생활에서 안정된 면모를 보여준 것이다.

X씨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X씨가 막내였기 때문에 형님과 누나들은 모두 성인이 된 이후였다. 아버님은 경찰이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깊이 상심하셨다. 형제들은 아버지를 위해 새어머니를 모시기로 한 후 3개월만에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다. 처음에는 갈등이 없었으나 이후 형제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하여 형제가 모두 가출하게 되었다. 갈등의 원인은 아버님이 형제들을 돌보지 않고, 새어머니에게만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X씨도 가출하여 혼자 생활하기 시작하였으며,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약 8번의 재혼을 하였다.

X씨의 경우 어머니가 비교적 오랫동안 살아계셨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아버님은 8번의 재혼을 하였다가 돌아가셨는데, X씨의 경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으며, 슬픈 감정조차 들지 않았다고 한다.

N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 후 큰댁에서 살게 되었는데, 큰아버지가 빚 때문에 누나를 가정부로 팔아넘기듯이 보냈으며, N씨만이 큰댁에서 약 4년정도 생활하였다. 누나가 가끔씩 들려 신발이나 학용품 등을 사주고 갔으나 사촌들에게 빼앗기기만 하였다.

N씨의 경우 큰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많이 갖고 있었다. 또한 사촌들과의 불화도 N씨에게는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부추겼다. 이러한 경우는 L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L씨의 부모님은 6.25 당시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첩을 얻을만큼 살림은 넉넉하였다고 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큰아버지께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가졌다. 큰아버지는 L씨와 L씨의 형님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논을 1마지기씩 주면서 농사를 지어보라고 하였다. 이에 결국 L씨는 15살 무렵 형님과 함께 가출하였다.

반면 U씨의 경우 비록 양부모 밑이 아닌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고아원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으며, U씨의 생활도 다른 사례들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U씨는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재혼하시면서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친구들의 꾀에 넘어가 가출하였다. 그 고아원은 자체적으로 농사를 지어 재정을 증대하였으며, 공부하고자 하면 대학교까지 보내주는 곳이었다. 재건대에서 구두닦이를 시작하면서 이후 계속 구두닦이를 하였다.

U씨는 만약 자신이 고아원을 가출하지 않고 계속 생활하였다면, 아마도 대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어린 시절 친구들의 꾀에 넘어갔던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양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안정한 생활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사사례를 보면, 편부모와 생활하는 것이나 친척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욱 좋지 못한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의 보호

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해줄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부모가 이러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이를 대체해줄 수 있는 사회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무주거자들의 이렇게 의지할 곳없이 불안정하게 성장하였던 과정을 보면서 또 다른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이 있음을 알게 된다. 즉 조사대상자들이 무주거자가 되면서 남이나 혹은 친척에게 맡겨진 그들의 아이들이다.

(2) 무주거자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조사대상자인 무주거자들의 대부분은 가족유대가 불가능할만큼 해체되었거나 애초 가족을 형성하지 못하다가 무주거자가 되기도 하였다. 가족을 형성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생활하다가 무주거자가 된 사례는 B씨, H씨, L씨, M씨, N씨, O씨, S씨, W씨, X씨, Y씨, b씨, f씨, g씨, j씨 등으로 14 사례에 해당한다. 반면 아내와의 갈등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된 경우는 A씨, D씨, F씨, H씨, l씨, J씨, K씨, P씨, R씨, Z씨, d씨 등의 10 사례이고, 그의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된 경우는 E씨, Q씨, T씨, i씨로 4 사례였다. 또한 U씨는 아내가 정신 질환을 앓게 됨에 따라 현재는 일시적으로 가정이 해체된 경우이다⁴³⁾.

이들 사례 중 자녀가 없었던 경우는 H씨와 U씨에 불과하다. 나머지 사례들은 모두 자녀가 있었으며, 무주거자가 되면서 자녀들은 남에게 혹은 친척들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자녀들을 맡고 있는 경우는 A씨, D씨, F씨, J씨, K씨, P씨, R씨, V씨, c씨, d씨, e씨, h

43) 5장을 참조.

씨 등 12사례이다.

반면, C씨는 자녀를 작은데에 보냈고, Q씨는 외가데에, T씨는 큰 데에서 생활하게 하였으나 E씨의 경우는 남에게 맡겼고, G씨는 자녀 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며, Z씨는 공장에 맡 겠고, I씨는 같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의 가정이 어떻게 해체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을 떠나 보호를 해주어야 할 부모가 무주거자가 되면서 그 자녀들 역시 주거가 불안 정한 생활을 하게 된다. 현대와 같이 가정의 해체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는 아이들의 수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결손 가정의 유형 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편부모 가정은 66년 39만 가구였으나 70년 59만가구, 80년 74만가구, 90년 89만 가구로 크게 증가하고 있 다. 95년의 경우 1백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 라 1995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가 모두 11만3천5백7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장애복지신문, 1995.10.9).

현대는 대가족이 해체되면서 단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만이 아니라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한 편모, 편부가정이 많아지고 있 다. 이러한 수치는 이제 결손가정의 문제나 결손으로 인한 아동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며, 사회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 근현대사과정의 비극으로 인한 가정 해체와 보편적인 빈곤상황에서의 나름대로 불가피하였던 대책부재와 달리 최근의 가정해체는 현대의 사회적 현상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그렇지 못할 경우 이러한 현상들은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정책적 구조와 함께 보다 많은 무주거자를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 다.

제 5 장 우리 나라 무주거자의 발생원인

무주거자들이 어떻게 무주거자가 되었는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는 어렵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상당히 많은 사건과 사고를 겪 었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 이후의 삶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 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표 5-1 〉 사례 분석 4

원인 분류	사 례
경제부문의 변화	1) 고용의 악화 : A, B, S 2) 이농후 고용악화 : G, R, V 3) 자영 및 사업의 실패 : C, D, P, c, d 4) 소득불안정과 재산손실 : E, F, X
노동능력의 상실	1) 질병 및 질환 : H, N, Y, e, i 2)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 T, b, g 3) 강제수용과 인신매매 : C, K, L, M, W, Y
가정의 해체	1) 가족의 가출과 사망 : B, O, W, a 2) 아내의 사망 : C, E, G, Q, h 3) 아내의 가출 및 이혼 : A, D, F, H, I, J, K, R, V, b, c, d, f 4) 조사대상자의 가출 : P, T, U, Z, g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이 겪었던 사건과 사고 등을 크게 3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고용관계나 노동활동 과 같은 경제적 부문에서의 변화나 사고 등을 통해 무주거자가 된

사례들이며, 두 번째 유형은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신체적 문제 혹은 사건 등을 통해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무주거자가 된 사례들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가정이 해체되면서 무주거자가 된 사례들이다. 무주거자들은 기본적으로 가정의 결속력이 약하거나 가정이 해체되면서 무주거자가 되었다. 따라서 거의 조사된 전사례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사례분석표 5를 보면(표 5-1) 참조, 경제부문의 변화나 사건 등을 통해 무주거자가 된 사례들이다. 이 사례들은 다시 일반적인 고용 악화로 인하여 무주거자가 된 사례와 이농후 고용악화를 통해 무주거자가 된 사례, 사업실패 등을 겪었던 사례, 소득이 불안정해짐으로써 무주거자가 된 사례로 분류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불의한 사건과 사고를 통해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정신질환, 알콜, 질병 등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례들로 다시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유형은 앞의 두 유형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체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이 해체된 사례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독립가정을 형성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유대가 약화되면서 무주거자가 된 사례와 상처로 아내를 잃은 경우, 아내가 가출하였거나 이혼한 경우, 조사대상자 본인이 가출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경제부문의 변화와 그 영향

흔히 무주거자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실업'의 상태를 선택한 일할 의욕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무주거자들의 현재 모습만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 갖게 되기 쉬운 것이다. 물론 무주거자들 가운데서도 정상적인 노동을 하지 않았고, 또

무주거자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도 노동능력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노동할 의사가 거의 없는 무주거자들이 있다. 하지만 앞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상당수의 무주거자들은 낮은 학력과 특별한 기술이 없는 여건에서도 노동을 해왔으며, 대개 힘든 노동조건과 환경을 견디어 가며 아주 오랫동안 일해왔다. 그러한 개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고용이 악화되면서 무주거자가 된 사례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S씨이다.

S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ROTC 4기로 군복무를 마친후 교수님의 추천으로 남한농림개발주식회사에서 관리과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약 2년 정도 근무한 후 이모부가 경영하는 부곡산업에서 경리일을 보았다. 그 후 대학선배의 소개로 농학관련서적을 취급하는 일을 하였다. S씨는 이곳에서 혼자 일하였다. 이 출판사가 미국인에게 인계되면서 그만두었고, 인물연구소에서 자서전과 위인전을 만드는 원고를 집필하는 일을 했다. 이 곳은 고등학교 선배가 경영하는 곳으로 역시 혼자 일을 하였다. 그러던 중 S씨 가족의 수입원이 없어 S씨는 돈을 벌기 위해 신문의판원을 시작하였다. 약 4년 후 대학선배가 현진섬이라는 실크옷 제작공장에 소개해 여기서 실크옷이 옷걸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스티로폼을 대는 일을 하였다. 그러다가 술에 취해 넘어져 다치면서 공장에서 쫓겨나 생활하다가 목사님을 만나 화평교회에서 집사로 일하였다. 이 교회의 신도는 S씨까지 포함에 겨우 3명이었고, S씨는 혼자 생활하면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수용되었다.

이와 같이 S씨는 명문대를 졸업하였고, 그 후 교수, 이모부, 선배 등을 통해 이루어진 고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무주거자가 되었다. 그는 42세가 될 때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나 혼자 일자리에서 숙식을 해결하였고, 급여도 용돈 정도만을 받으며 일하였다. 묘목 보

급, 우체국 건설, 농학관련 백과사전편찬, 위인전 작성, 성씨 백과사전 편찬 등 의미있는 일을 하였을지라도 돈을 벌기 위해 신문의판원까지 할 정도로 고용은 악화되었다. A씨, B씨는 S씨와 마찬가지로 고용이 악화되다가 무주거자가 된 사례들이다.

이와는 비슷하지만 이농을 통해 이후 도시에서의 고용이 악화되면서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무주거자가 된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R씨이다.

R씨는 고향인 논산에서 부모님이 하던 농사를 물려 받아 40세가 될 때까지 농사를 지었으나, 힘들고 남는 것도 없어 땅을 팔고 인천으로 올라왔다. 인천으로 온 후 쌀가게를 차렸으나 이내 실패하고 노동일을 하게 되었다. R씨는 도시로 올라온 후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었다. 결국 가족들은 R씨를 혼자 살게 하였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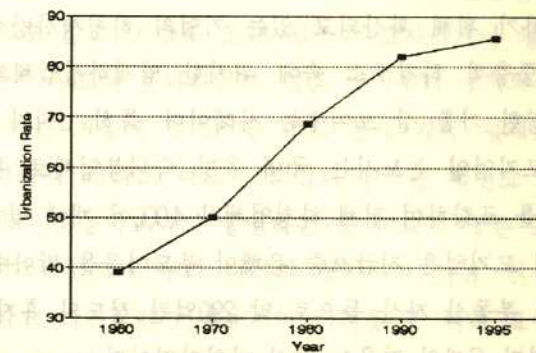
G씨와 V씨도 유사한 과정을 겪고 무주거자가 되었다. 사실 이농이란 20세기의 가장 극적이고 엄청난 변화인 도시화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이농은 도시내 주거, 고용, 빈부격차, 교통난 등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도시화는 근대화 와 산업화과정에 따른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농은 농촌의 피폐로 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이 농촌의 빈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였다. 농업과 농촌의 피폐로 인하여

44) 실제로 R씨는 자신이 왜 무주거자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혼자 방을 얻어 살기 시작한 이후 둘째 아들이 가끔 용돈과 생활비를 갖다주었는데, 아들이 오지 않으면서 보증금을 다 까먹게 되었고, 아들이 오기 전에 주인으로부터 쫓겨났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복지시설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들이 R씨 모르게 숨은 것으로 밝혀졌다.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와 그에 따른 이농은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이른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그림 5-3) 참조.

급격한 도시화의 과정은 개인적으로는 생활과 고용조건 변화의 의미였고, 이 과정에 적응해 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빈곤의 굴레로 떨어지고 심한 경우 본 조사대상자와 같이 무주거자가 되기도 한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R씨와 V씨의 경우도 1990년에 이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짓는 것 외에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이들은 대개 곧바로 도시에서 불안정한 고용에 처하게 된다.

〈그림 5-1〉 우리나라의 도시화율 추이



자료 :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각연도.

경제활동상의 변화로 인하여 무주거자된 세 번째 부류는 사업의 실패를 경험한 사례들이다. 이들은 어려운 노동조건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여 목돈을 마련한 후 사업이나 자영업을 시작하지만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이 풍부하지 못함에 따라 실패를 경험하였다. 또 사업실패 후 가정이 해체되면서 무주거자가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D씨이다.

d씨는 17살 때부터는 봉제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미싱과 재단일을 익혔다. 경력을 어느 정도 쌓아서 유명한 패션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89년 32살이 되던 해, 봉제일을 시작한 지 15년만에 d씨는 자기 공장을 갖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공장을 운영한 지 2년만에 모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고 d씨는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모두 날렸다. 이후 낙심하여 술을 많이 마셨다. 몇 군데 공장들에서 일을 하였으나 잘 적응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처가에서 아내를 데려가버린 후 거리를 떠돌게 되었다.

d씨는 세계의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확산되고 있는 기업의 하청생산방식에 따른 희생자이다. 중층적 하청구조 속에 위치한 영세하청업체의 운영이 얼마나 불안정한 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d씨가 경영하던 하청원체의 모기업인 논노사는 국내 유명 숙녀복업체로 부도 당시 영세봉제업체를 포함하여 전체 하청업체가 4,000여 개에 달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 모기업은 지급보증 은행이 부도어음을 막아주고,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 자산 등으로 약 290억원 정도의 흑자부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P씨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P씨는 군복무를 마친후 친척분의 소개로 여수의 세무서에서 일하게 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5.16쿠데타가 일어나 정권이 바뀌면서 공화당에 입당하여 정당활동을 하였다. 여기서 연줄을 만들어 3공화국 당시 일반행정직 공무원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5공화국이 들어선 1980년대 초 공무원 2만명 강제해직으로 강제퇴직 당하였다. 이후 아버님의 소개로 약병뚜껑을 만드는 공장을 경영하였으나, 납품대금이 잘 건히

지 않아 5년만에 문을 닫았다. 80년대 후반에는 건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다. 당시 아파트 건설붐으로 인해 건축업이 호황기였으나 건자재는 건설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영세한 건설업체나 무면허 건설업체에게 납품되기 때문에 납품대금을 제대로 수금하기도 어려웠고, 심지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도망가버리는 업체도 있었다. 그러던 중 5년 정도 거래를 한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P씨의 사업도 실패하게 되었다.

P씨는 정치적 변화에 따라 공직생활을 하다가 결국 강제해직되고, 이후 두 번에 걸친 사업실패로 재산을 모두 날리게 되었다. 50세라는 나이에 다시 직장을 얻기도 어려워 결국 건설현장에서 미장기술자들이 일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운 정도로 일용건설노동자가 되었다. 나이도 많고, 기술도 없어 일꾼이 모자라거나 결근을 할 경우 '뺨방'해주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결혼 당시부터 성격차이⁴⁵⁾로 별거를 해오던 P씨는 겨울에 일거리를 얻지 못해 결국 월세보증금을 모두 까먹게 되면서 거리로 나오게 되었다. P씨는 집안도 유복하였고⁴⁶⁾, 50년대 당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등 비교적 좋은 조건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정치사의 격변,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개인적인 가정유지의 어려움 등 여러 요인의 작용으로 인해 결국 무주거자가 되었다. D씨도 유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D씨는 5살 때 척추가 굽어지는 병에 걸렸으면서도 중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건설잡부일, 나무패기 등의 일을 하며 가계를 도왔다. 성인이 되어

45) P씨는 결혼 당시부터 부인에게 나는 인내(人氣)로 인해 같이 생활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여기에 처가가 주택을 마련하는데 자금을 대주었다는 명분으로 요구하는 것이 많아 자주 다투다가 결국 결혼한지 2년도 안되어 별거하게 되었다.

46) 3,4장 참조.

서는 광업소에 들어가 잡광일도 하였다. 잡광일을 하던중 이렇게 지내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학원에 다니면서 기술을 배워 전파사를 차렸다. 그러나 칼라 TV가 나오기 새로운 가전제품들이 양산되면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짐을 깨닫고 다시 학원에 다니면서 기술을 배웠다. 하지만 전파사를 계속 운영한다는 것이 그다지 수익이 날 것 같지 않아 그만두고 상경하였다.

D씨는 불편한 신체에도 불구하고 힘든 육체적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기술을 배워 가게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발전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그후 D씨는 서울에 올라와 봉제관련 영세업체에서 일하였으나 소득이 감소하면서, 생활이 불안정해졌고, 아내와 갈등이 심해져 결국 가출하였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은 끊임없이 개발된다. 일반인들이 그 변화의 급속성과 지속성을 수용하기란 쉽지 않다. 다가올 21세기는 정보통신의 시대이며, 새로운 변화가능성이 많은 시대라고 한다. 즉 학력에 상관없이 정보통신부문의 무한한 가능성과 창의성의 발휘를 통해 보다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이미 사회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어 그 접근 자체가 불균등한 현실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잡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D씨와 d씨의 경우 모두 지방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도 매우 성실하게 일했고, 또 둘 다 어느 정도 돈도 모으고 기술도 익혀 자기 사업을 시작한 경우이다. 그러나 자기 사업에 실패하는 경험을 가졌다. 사업의 실패로 실의에 빠지면서 가정마저 위태로워지기 시작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생활을 지속시키기 위해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해보지만 이전과 같은 의욕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나머지 경제부문에서의 변화와 그 영향으로 무주거자가 된 유형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렵거나 커다란 재산의 손실로 무주거자가 된 사례들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E씨, F씨, X씨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E씨, F씨이다.

E씨는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한 후 집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지냈다. 6.25가 일어나 1.4후퇴 때 단신월남하였다. 그 후 남대문시장과 중부시장 등지에서 야채와 견어물 등을 자전거로 배달하며 생활하였다. 약 15년을 이렇게 생활하는 과정에 결혼하였으나 결혼한지 3년만에 상처하였다. 그 후에도 자전거배달을 하였으나 생활이 어려워 1984년 자정하여 복지 시설에 입소하였다.

F씨는 17세에 가출하여 인천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극장 포스터를 붙이는 일을 하다가 극장에서 영사기 기사 보조를 하면서 영사기 기사가 되었다. 18살에 결혼한 후 군입대하여 월남에 다녀왔다. 제대후 집을 두 채나 샀는데, 아내가 하던 고리대금업이 개지면서 집 두채를 날렸다. 그후부터 폭음과 폭행을 일삼아 아내가 가출하였다. 그 뒤로 F씨는 약 3년 동안 공장과 목장 등지에서 생활하다가 화상을 입어 여쭙할 도리가 없어 시설에 오게 되었다.

E씨는 꾸준히 성실하게 일하였으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여기에 질병으로 아내를 잃게 되면서 생활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무주거자가 되었다. 반면, F씨는 재산을 많이 잃게 되고 그에 따른 심적 불안이 심해지면서 가정이 해체되고, 무주거자가 된

사례이다.

이와 같이 무주거자들이 현재 노동하지 않거나 노동할 의욕이 약하다는 것만으로 이들을 '일하기 싫어하는' '놀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무주거자를 이해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노동의욕을 상실하게 된 과정을 추적하고 이들이 무주거자가 되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이들이 무주거자가 되었던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경제활동을 하며 건강하게 일하면서 고용조건이나 빈곤이 개선되지 않고, 여기에 상실감을 주는 사건을 겪게 되면서 삶을 포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는 무주거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데 중요하다.

2. 노동능력의 상실 과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질병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면서 무주거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다시 3가지 형태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질병이나 알콜중독,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서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례들이고, 두 번째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를 당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된 사례들이다. 세 번째는 강제수용이나 인신매매 등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인권유린을 통해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과정을 거친 사례들이다.

먼저 조사대상자인 무주거자가 질병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된 사례들이다.

D씨는 어려서부터 앓기 시작한 무릎관절염으로 중학교를 중퇴하였다.

가내에서 과자만드는 일을 하던 동생을 도와주며 지내다가 22세부터 요꼬 공장에 다녔다. 전망도 없고 하여 의류노점을 시작하였으나 벌이가 안정적이지 못하여 그만두고 인형공장에 들어갔다. 같은 공장에 다니던 여자와 동거를 하였으나 가출한 후 폭음을 하게 되었다. 이후 관절염이 다시 악화되어 동생집에서 지냈으나 당노 등으로 몸이 더 안좋아져 자진해서 시설에 입소하였다.

D씨는 몸도 안좋고 동생에게 신세지는 것도 미안하여 치료의 도움을 얻기 위해 구청에 찾아갔다. 생활보호대상자 장애등급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그 처리기간이 오래 걸려 시설에 자진 입소하였다.

질병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D씨처럼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무주거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자산이 풍부하거나 외부로부터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D씨의 경우와 같이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아무런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빈곤가구들은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해 더 극빈한 상태로 떨어지는 과정을 밟게 된다.

우리 나라도 1989년부터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다⁴⁷⁾. 그러나 아직도 개인의 부담율이 75%에 달할만큼 금전적 부담이 높으며, 특히 장기적이고 과다한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유용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주소득원인 가구원이 질병에 걸릴 경우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의 문제로 인해 장기적으로 치료받기

47) UN에서는 최근 우리나라를 100여개국을 넘는 의료보장 실시 국가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그 만큼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진정한 전국민 의료보장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어렵고, 그 과정에 더 빈곤한 상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민간보험이 도입된다면 사회보험인 의료보험이 갖고 있는 그나마의 보장적 성격까지 약화시킬 여지가 많아 저소득층 환자가 증병에 걸릴 경우 더 많은 '가정경제의 파탄'을 몰고 올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는 정신질환이나 알콜중독에 걸리면서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된 사례들이다. M씨와 I씨가 대표적이다.

M는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부하기가 싫어 목재소에 취직하였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앵글과 선반을 만드는 금형공장에 취직하여 용접일을 배우기도 하고, 중국집과 술집 등에서 일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 충격으로 인해선지 M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고모댁에서 생활하였다. 그러다가 가출하여 서울에 와 나이트클럽이나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다 그만두고 선원이 되고 싶어 인천에서 배를 타려고 하다가 인신매매되어 목포에서 강제로 새우잡이 어선을 타게 되었다. 약 6개월정도 강제노동을 하다가 풀려났는데, 갈데도 없고, 돈도 없이 놀이터에서 자고 있다가 시설에 수용되었다.

이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도 아무런 치료나 보호없이 혼자서 떠도는 생활을 하였고, M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가출하여 유흥업소와 공장 등에서 일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새우잡이 배에 인신매매되어 강제노동을 하면서 건강이 악화되었다. 다시 사회로 돌아왔으나 이미 노동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

정신질환과 마찬가지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알콜중독은 잦은 음주로 중독이 되가고, 결국에는 일할 수 없게 된다.

N씨는 누나의 도움으로 경비일, 식당일 등을 하며 지내다가 찻상만드는 공장에 다니게 되었다. 신혼인 누나의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것이 미안해 혼자 생활하면서 동료들과 어울려 음주를 하게 되었다. 또한 공장사가 술을 좋아하여 매일 식사 때마다 반주로 마시곤 하였다. 결국 노동할 수 없을만큼 알콜중독이 심해지면서 공장을 나와 거리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Y씨 역시 N씨와 유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술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 이들은 열심히 일하며 생활하였으나 장기간에 걸친 잦은 음주로 중독이 되면서 점차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

알콜중독이나 정신질환과 같은 질병은 장기적인 보호와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개별가정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치료받은 뒤 곧바로 사회에 복귀하고 다시 재발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강제적인 수용이나 보호는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자기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들을 사회가 방치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장애우는 노동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들이 건강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적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 실업율이 2.0%대를 유지하는데 비해 남자 장애우의 실업율은 24.7%(장애인신문, 1997.5.26)에 이르고 있다. 그만큼 우리 나라에서 장애우로서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많으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장애와 빈곤은 떨어져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조사사례인 e씨는 선천적인 장애우이다.

e씨는 양손가락이 6개씩인 육손이고, 오른쪽 팔과 다리의 마비가 심하다. 오른손은 구부린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며, 오른발도 심하게 절고 있다. 지금까지 가게를 돌아다니며 수세미 장사를 하며 돈을 벌며 생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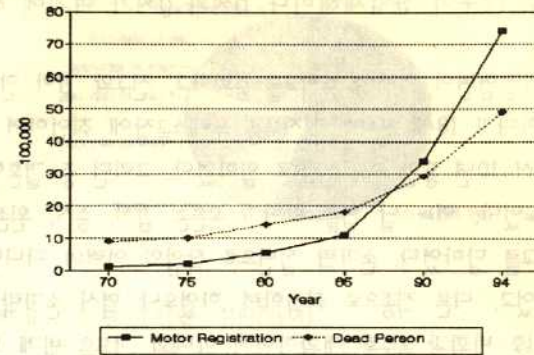
e씨는 장사를 하며 번 돈으로 일세집에서 자기도 하고 노숙도 하며 살아왔다. "돈도 없는 장애인이 결혼은 꿈도 꿀 수 없다"라는 말로 가난과 장애의 굴레가 겹쳐진 자신의 삶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최근에 올수록 사고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우가 증가하고 있는 데 T씨와 b씨는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를 당하면서 장애를 얻어 무주거자가 되었다.

T씨는 이발기술로 자격증을 따 이발소를 경영하기도 하였다. 27살 되던 해에 결혼하여 전주에 내려가 농번기 때는 농사도 지으면서 장사를 하였다.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행복하게 지내던 중 1990년 어느 날 경운기로 시내에 일을 보고, 돌아오다가 타이탄트럭과 충돌하였다. 이 때 목뼈가 부러지는 등의 심한 부상을 당하여 현재까지도 몸이 마비되곤 한다.

T씨는 뺑소니 차에 치여 대소변도 처리하지 못할 만큼 중상을 입었다.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판으로 폭음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그러다가 자살하려는 마음으로 가출하여 자살기도를 세 번이나 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하면서 현재까지 무주거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림 5-2〉 자동차 등록대수 및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추이



자료 : 통계청, 1997, 「한국의 사회지표」

교통사고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현대사회의 일상적인 사건이다. 우리 나라는 자동차보급대수 1천만 대로 인구 4명에 1명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면허취득인구가 2천만 명으로 2명에 한 명은 운전면허를 갖고 있다. 자동차문화가 보편적이 사회문화로 잡히면서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여 우리 나라는 교통사고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다⁴⁸⁾.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1985년 이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가 급증하여 1994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49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높은 교통사고율은

48)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여러 나라의 교통사고율 중 한국이 세계에서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보도하였다. 이 전문에 따르면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49명으로 나타났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교통사고국은 슬로베니아(40명), 러시아(38명), 포르투갈(35명), 그리스(33명)이었고, 교통사고가 가장 적은 나라는 노르웨이(8명), 영국(9명), 스웨덴(9명), 네델란드(11명), 핀란드(12명) 등이라고 발표하였다.

도로 역시 경쟁의 공간으로 전락하면서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많은 가정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를 통해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산업재해이다. b씨와 g씨가 여기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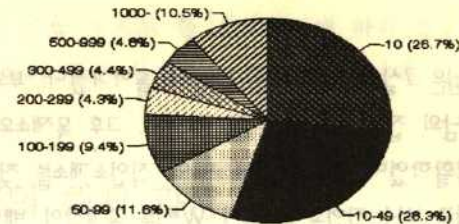
b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를 중퇴하고, 친구와 같이 인천으로 올라와 일을 하다가 18세 때에 전자부품 프레스공장에 취업하여 영등포와 인천 등지에서 10년 동안 프레스공으로 일하였다. 그러던 중 결혼하여 2명의 자녀도 두었다.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오른손 엄지, 중지, 왼손 엄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손가락 절단으로 작업이 어려워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다른 직종으로 취직하려 하였으나 역시 손가락 때문에 어려웠다. 이후 방황과 음주로 생활하면서 아내와 갈등을 빚게 되고 그러다가 이혼하면서 떠돌게 되었다.

g씨의 사례도 이와 유사하다. 더욱이 g씨는 산업재해에다 결핵이라는 전염성 질병을 앓게 되면서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집을 나왔다.

산업재해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장에서 전체 산업재해의 55%가량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의 경우 노동자수는 전체의 6.5%에 불과한 반면 재해자수는 26.6%에 이를 정도로 재해율이 높다. 열악한 작업조건과 강도높은 노동, 그리고 안전설비의 미비로 재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그림 5-3) 참조). 이러한 소규모 업체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저소득층에 속한다. 따라서 재해를 당한 이후에도 생활비 등의 문제(49)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다시 일해야 하지만 b씨처럼 장애를 얻게 되면 재취업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49) 기업들은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재해를 은폐시키려 하며 부당한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다. 이에 따라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일터에서 쫓겨나기도 한다.

(그림 5-3) 사업장 규모별 재해발생분포



자료 : 노동자신문, 1997.5.20.

다행히 업무에 복귀하여라도 근본적인 작업여건과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못하여 중복재해를 당하기 쉽다(50).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노동능력은 점점 상실되어간다. b씨나 g씨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음에도 무주거자가 되었다(51).

강제수용이나 인신매매는 직접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수용과 인신매매를 당하면서 좌절하여 폭음을 하게 되고, 강제노동으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점차 노동능력은 상실

50) 연도별 산업재해 및 중복재해 발생현황 (단위 : 명)

	1992	1993	1994	1995	1996
발생총계	107,435	90,288	85,948	78,034	-
중복재해	14,456	12,703	12,353	11,288	10,940
중복재해율	13.45	14.06	14.3	15.46	-

자료 : 장애인신문, 1997.5.19.

51)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를 통해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된 사례가 많이 조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무주거자 관련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당한 무주거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되어 간다. 인신매매를 당한 사례는 W씨와 M씨이고, 강제수용되었던 사례는 C씨, K씨, L씨, Y씨 등인데, 이들은 이후 건강한 노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W씨의 아버님은 7살에, 어머니는 15살에 돌아가셨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W씨는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다. 그후 목재소와 주유소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였다. 20세 되던 해에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일 자리를 얻었는데, 알고 보니 직업소개소에서 W씨를 고기잡이 배에 팔아넘긴 것이었다. 약 6개월 동안 월급도 한푼 못받고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계약기간이 끝난후 풀려났으나 선원생활을 하면서 폭음을 하고, 강제노동으로 건강이 악화되었다. 가진 것도 없는 상태라 곧바로 거리생활을 하게 되었다.

C씨는 중학교를 중퇴한 후 이발기술을 배워 줄곧 이발일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결혼을 하였으나 상처하였다. 그후 생활이 여의치 않아 자녀들을 동생이 살고 있는 강원도에 보내고, 막내아들만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역에서 잠깐 먹을 것을 사러갔다 와보니 아들이 없어져 아들을 찾으라고 역 부근을 하루종일 헤매었다. 그러다 지나가는 경찰에게 경황을 이야기 했는데, 경찰이 차를 갖고와 강제로 시립갱생원에 수용되었다.

정책집행의 잘못으로 강제수용되고,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노동하면서 무주거자가 된 이들의 삶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있다. 특히 W씨의 경우 직업소개소를 통해 인신매매되어 인권유린이 얼마나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알게 모르게 개인의 삶을 규정지워간다. 앞서 살펴보았던 P씨의 경우처럼 정치의 근현대사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전반적인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개인의 삶이 바뀌기도 한다. 우리 나라는 1960-70년대 급속한 경제개발정책이 실시하였다. 분배의 정의나 삶의 질의 문제, 인권의 문제 등을 담보로 한 경제발전에 따라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들도 그 중 하나이다.

3. 가정의 해체 과정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전사례에서 가정의 해체가 이루어다. 가정이 해체된 유형은 크게 4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하나가 결혼을 통해 독립적인 가정을 형성하지 않았어도 유대를 맺고 있던 형제 혹은 부모와의 문제로 무주거자가 된 유형이다. 두 번째는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 아내를 잃게 되어 무주거자가 된 유형이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이혼하였거나 아내가 가출한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은 조사대상자들이 가출한 사례들이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을 살펴보면, 앞서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립적인 가정을 형성하지 못하고 혼자 생활하다가 무주거자된 사례는 총 14사례였다. 이들 중 유대를 맺고 있던 가족구성원의 변화로 무주거자가 된 사례는 4사례인데, O씨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O씨는 두 형과 함께 만두 만드는 기술을 배워 만두분식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둘째 형이 고향을 다녀온 후 삶에 대해 비관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곤 하다가 결국 자살하였다. 그리고 큰 형은 부인과의 갈등으로 이혼하여 혼자 키우고 있던 조카딸이 가출하여 삶을 비관하던 큰형도 자살하였다. 두 형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O씨는 그후 혼자 거리생활을

하게 되었다.

O씨의 경우 두 형님이 자살하면서 충격을 받아 무주거자가 된 반면,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누나가 집안을 정리하고 나감에 따라 무주거자가 된 사례이다.

a씨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 돌아가셨다. a씨에게는 위로 누나가 한 분 계셨는데, 동사무소에서 일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누나는 a씨 몰래 전세돈을 갖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a씨는 누나를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주유소와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다가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에 온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면서 술을 많이 마셨다. 건강이 악화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쉽지 않아 노숙을 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W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후 새엄마와 아버지와 갈등으로 무주거자가 된 사례이다. W씨의 아버지는 약 8번의 재혼하는 등 자녀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와는 달리 두 번째 유형은 가정을 형성하였으나 아내가 질병 등으로 인해 죽게 됨에 따라 무주거자가 된 사례들이다. 이 사례들은 아내의 질병을 치료하는 동안 생활기반이 흔들리거나 제대로 한번 치료조차 해주지 못하기도 하였다.

G씨는 어려서부터 형들과 함께 농사일을 거들었다. 고향에서 줄곧 농사를 짓다가 30세가 되어 결혼하였는데 15년 후 아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였다. 형편도 어렵고, 주변에 병원도 없어 병원에 한 번 가보지도 못한 채 아내는 죽었다. 이후 홀로 인천으로 올라와 식당보조일을 하였으나

마땅한 연고도 없고, 속도 상하여 술을 많이 마셨다. 그러던 중 폭음후 잠을 자고 있다가 시설에 수용되었다.

G씨는 넉넉하는 얹으나 농사를 지으며 건강하게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아내가 병을 앓게 되었다. 주위에 이용할만한 의료시설도 없고, 형편도 어려워 제대로 치료조차 해주지 못하였다. 아내가 죽은 후 G씨는 상경하였으나 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하며 지내다가 무주거자가 되었다. 반면, Q씨는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면서 무주거자가 되었다.

Q씨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의상실에서 일하였다. 오랫동안 일하면서 일급기술자가 되었다. 그러던 중 전문대에 다니며 의상실에 견습나온 아내를 만나 처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였다. 결혼한지 10년이 되고, Q씨가 봉제공장도 경영하고 있을 때쯤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 충격으로 Q씨는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스님의 도움으로 살아난 후 현재까지 무주거자 생활을 하고 있다.

Q씨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생활을 추스리려고 하였으나 봉제관련한 일을 할 때마다 아내가 떠올라 일을 할 수 없었다. 다른 일을 찾다가 건설일을 하게 되었고, 그 후 계속 떠돌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가정의 해체는 우리 사회가 양산하고 있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 번째 유형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아내가 가출하거나 이혼하면서 가정이 해체된 사례들이다. 여기에는 조사대상자의 폭음과 폭행으로 아내가 가출한 F씨와 생활의 불안정으로 동거녀가 가출한 H씨와 f씨, 아내가 춤바람이 난 l씨와 j씨, 사업실패후 갈등으로 인해

이혼하게 된 C씨와 D씨 등이 있다.

F씨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내가 하던 고리대금이 깨지면 서 집을 두 채나 날린 후 폭음과 폭행을 일삼아 두려움 때문에 아내가 가출하면서 무주거자가 되었다. 한편 R씨는 이농후 차린 쌀가게가 실패한 후 노동일을 하며 지냈다. 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폭음과 폭행을 하게 되면서 가족들이 R씨 몰래 숨어 살고 있다.

소득과 생활의 불안정으로 아내와 동거녀가 가출한 사례는 A씨, H씨와 I씨이다.

A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사출공장과 고무공장을 다니다가 월급이 적어 그만두고 목욕탕에서 일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고무공장에 다녔으나 공장이 공단으로 이전하면서 퇴직하였다. A씨는 그 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내면서 자주 폭음과 폭행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족과 갈등을 겪게 되면서 아내가 가출하였다.

H씨와 I씨는 여러 공장을 전전하거나 건설노동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술을 마시면 구타를 하여 아내와 동거녀가 가출한 사례들이다. 고용의 불안정과 그에 따른 생활의 불만족으로 폭음과 폭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씨와 K씨는 아내가 춤바람으로 가출한 사례에 해당한다.

J씨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버스조수일을 6년, 삼륜차 운전은 3년, 트레일러 운전은 약 4년, 시외버스 운전은 7년간 몰았다. 그러던 중 버스차장을 하던 아가씨와 결혼한 후 시외버스 운전은 그만두고 트럭을 하나 구입하여 마늘장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사나흘에 한 번꼴로 집에 들렀다. 그 사이 아내가 이웃집 여자와 함께 춤바람이 났고, 제비죽에게 돈을 갖

다 주면서 집까지 저당 잡힌 후 도망갔다.

L씨는 이웃집 남자와 함께 아내를 찾으러 다니면서 술만 마셨다. 이후 아내 찾는 것을 포기한 후 노동일을 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J씨 역시 이와 유사하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계층간의 격차가 오히려 더 심화되면서 상대적 박탈감 역시 심화되고 있다⁵²⁾. 넉넉하지 못함으로 인해 욕구들을 억제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많으며, 이 잠재된 욕구들이 춤바람이나 폭음과 폭행 등과 같이 파행적 형태를 띠고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많은 가정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유대가 약한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주거자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가족간의 유대는 약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현대사회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문제의 한 측면으로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 사업의 실패로 아내와 이혼하게 된 사례도 3 사례였다.

C씨는 31살이 되던 해에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13살 아래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고 이듬해 딸을 낳았다. C씨는 사업을 실패한 후 실의에 빠져 술로 세월을 보냈고 새로 구한 일자리에도 적응하지 못했다. 그 려자 광주에 살던 처가식구들이 올라와 아내와 딸을 데려갔다. 그 후로 C씨는 거리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아내와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몸이 심하게 상한 후에는 아내에게 연락할 면목도 없다고 한다.

52) 최근 정신과에서는 '부중후군'이라는 새로운 병명이 통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못사는 사람은 잘사는 사람들에게,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사는 사람들로 인해 상대적 박탈을 심하게 느끼는 증상이라고 한다. 한겨레신문, 1997.4.20.

D씨와 d씨도 이와 유사하다. 이들은 사업에 실패한 후 예전처럼 건강한 노동생활을 하게 못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해졌다. 그 사이 아내와의 갈등도 커져 이혼을 하면서 무주거자가 되었다. 반면, K씨는 아내가 거스름돈을 거슬러 주지 못할 만큼 무지해서 이혼하였다.

네 번째 유형은 조사대상자가 가출한 사례들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된 후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가출한 T씨, 아내가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서 아내를 처가에 맡긴 후 떠돌고 있는 U씨, 아내의 도박으로 갈등하게 되어 가출한 Z씨, 산재를 당한 후 결핵에 걸려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집을 나온 G씨 등이다.

가정이 해체된 원인은 다양하다. 이런 가정의 해체가 직접적으로 무주거자를 발생하게 하기 때문에 가정의 해체가능성이 높아지는 최근에 올수록 무주거자가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가정의 해체는 단지 그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문제나 혹은 노력의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이 해체된 데는 보다 근원적인 원인이 선행되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가정의 해체는 개인적인 측면보다 우리 나라의 제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구조의 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의 미흡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건강하게 노동하는 일반 사회인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현재 무주거자로 살아가는 모습만으로 이들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 6 장 무주거자들의 비참한 생활

최근 들어 서울역과 청량리역 주변에, 지하철역 안에, 그리고 공원 등에 노숙을 하는 이들이 많이 발견된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 전에도 노숙을 하는 이들이 조금씩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그 수가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노숙을 하는 이들일 뿐이고,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무주거자들은 보이는 현상보다 훨씬 많은 수에 달한다⁵³⁾.

무주거자는 빈곤층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빈곤의 상태에 처해있는 이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앞서 살펴 보았던 것처럼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며, 그로 인해 현재 특정한 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들은 무주거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그저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나 역 주변과 공원 등지에서 배회하는 모습, 혹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짐작할 따름이다.

무주거자가 되면 어떻게 생활하게 되는지 실제 무주거자들의 삶의 모습을 노동과 주거, 그리고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관계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노동과 벌이

무주거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잘못된 인식 중의 하나가 이들이

53) 앞의 3장을 참조바랍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무주거자들 중에는 마음먹기에 따라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보다 안정된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많은 수의 무주거자들은 정상적인 노동을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이들 중 대부분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상습적이고 과도한 알코올 섭취 등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무주거자로서의 삶을 통해 이미 노동능력을 거의 상실하였거나 점점 상실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결코 좋지 않은 주변여건 속에서도 건강하게 노동을 하고 있었으나 불의의 사고, 사업의 실패,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건의 발생 등으로 인해 삶에 대해 좌절하고 여기에 가정이 해체되면서 점차적으로 삶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삶의 대한 의지를 상실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으로 건강하게 노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주거자들도 노동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무주거자 관련 복지시설에 수용·보호되지 않는 한 어떤 식으로든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이들이 노동하지 않고도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이들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 배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앞의 3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무주거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이들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들여 보호해 줄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 방식은 무주거자들이 삶을 어느 정도 포기하였는가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흔히 사람들이 떠올리는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거리에서 구걸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인내와 의지를

필요로 한다. 한국 사람들처럼 체면과 얼굴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에서 남에게 구걸을 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구걸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어떤 면에서 볼 때 구걸을 한다는 것은 삶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 속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무주거자들은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경우가 많다.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번다거나 음식을 먹는다는 등의 행위를 하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 배고픔조차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그저 술만 마실 뿐이다. 이들이 술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동료 무주거자로부터 얻기도 하고, 술을 사기 위해 도둑질도 하기도 하며, 술을 훔치기도 한다.

T씨는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는 자살하려는 마음으로 집을 나왔다. 나오자마자 자살을 3번이나 기도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하였다. 그리고 나서서는 저절로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면서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살하려는 마음만 있을 때는 실패하여 몸이 엉망이면서도 계속 술만 마셨다. 그러다가 1년 정도 거리를 헤매면서는 쓰레기통도 뒤지고, 다른 사람들 먹을 것을 얻어 먹기도 하였다.

청량리역 앞 광장의 맘모스 백화점 맞은 편에는 대낮에도 무주거자들이 모여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점심을 근처 다일공동체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술을 마신다. 이미 취한 사람들은 바닥에 누워 자기도 하고, 알콜중독과 그 외 영양실조 등을 인해 아픈 사람도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보다 조금 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돌며 구걸을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2,000 원에서 많으면 1만원 가량 정도를 구

제공으로 제공한다. 그렇게 하루에 대여섯 군데의 교회를 돌면 대략 20,000 원 정도나 그 이상의 돈을 모을 수 있다. 그러면 약 3,000원 정도하는 일세방이나 만화방 등에서 잠을 자고, 종교단체 등에서 나누어 주는 식사를 무료로 혹은 200원 정도에 사먹을 수 있다⁵⁴⁾. 그러면 약 일주일 이상을 버티며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이렇게 보통 하루 한 끼 정도 제공되는 식사를 하고, 나머지는 술로 채우며 살아간다.

Q씨는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후 자살기도를 하였으나 스님의 도움으로 살아났다. 그 후로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살려고 하였으나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거리를 헤메게 되었다. Q씨는 거리생활을 하면서 노동일도 하였으나 삶의 목표도 희망도 낙도 없어지면서 노동일도 지속적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무주거자들의 얘기를 듣고 교회를 다니면서 구제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이보다 더 살려는 의지가 있거나 무주거자로서의 삶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불안정하나마 노동을 한다. 물론 이들의 노동은 일반인들처럼 안정되지도 않으며, 장기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다. 또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노동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노동을 한다.

일자리는 인력시장이나 직업소개소 등에서 구하기도 한다. 그러

54) 무주거자이거나 무의탁 노인들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민간단체들이나 종교단체들은 이들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초기에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였고, 지금도 무료로 제공하는 단체들이 많으나, 식사를 제공받는 사람들의 인건적인 존엄성을 위해 약 200원 정도의 밥값을 받는다. 물론 돈이 없다고 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 대다수의 무주거자들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신원을 보증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하게 소개를 받아 보았던 곳이나 그러한 무주거자들의 소개로 일자리를 간혹 얻을 뿐이다. 보통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가 일자리를 부탁하여 막일이나 잡일 등을 한다. 혹은 시장 등에서 과일이나 야채 등의 거래가 끝난 후 청소하는 일 등을 하고 일당을 받는다. 예전보다 일당이 많이 올라 4만원에서 5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한달에 약 50만원 정도의 수입에 해당하기도 한다. 일당을 받으면, 일세방에 미리 방값을 주고 나머지는 대개 술을 사서 마신다.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생활한다.

V씨는 살고 있던 판자집에 불이 난 후 한동안 딸네집에서 지냈었다. 지내는 동안 사위와 갈등이 많아 결국 집을 나오게 되었다. 이 때 딸이 리어커를 하나 사주었는데, V씨는 시장에 가서 야채를 떼어다 장사도 하고, 시장 청소도 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하였다.

무주거자들은 광야교회와 같은 복지시설이나 무주거자가 밀집해 있는 지역, 무료급식소 등에서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이들이 교환하는 정보는 어디를 가면 무료로 밥을 얻어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대개 서로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는 것이 예의이며, 밥이나 술은 흔쾌히 나누어 먹는다. 평소 일반인의 눈에는 옷을 여러겹 두텁게 껴입거나 오랫동안 땀지를 앓아 더러워보이는 무주거자들 외에 눈에 잘 띄지 않으나 무주거자들은 아무리 깨끗하게 사회인처럼 하고 있어도 서로를 금방 알아본다고 한다. 서로 만나게 된 무주거자들은 정보를 교환하다가 곧

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무주거자의 주거

무주거란 용어에는 직접적으로 주택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형태가 담겨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정한 집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무주거자의 주거형태는 다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무주거자들에게도 노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에 노숙을 한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무주거자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주거유형은 크게 3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하나는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일세를 내고 일세방에서 자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하루하루 일세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일세를 미리 내고 계속 같은 곳에 거처하는 사람들도 있다. 장기간 한 곳에 거처하는 사람의 경우 월 9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월세방에 사는 것과 거의 다름없다. 그런 면에서 이들을 임차인과 구분하여 무주거자라고 할만한 분명한 근거는 없다. 하지만, 임대계약관계를 갖지 않고 있으며, 실제 법적으로도 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없어 하루라도 일세를 내지 않으면 바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법적인 권리를 갖는 임차인과는 다르다.

아래의 g씨 같은 경우 가끔 노동일을 다니며, 일세집에서 생활하는 경우이다.

g씨는 서울에 단신으로 와서 몇 군데 달동네와 판자촌을 돌다가 영등포역 주변의 일세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역이나 길에서 노숙을 한 것도 일마간 있었지만, 바깥에서 잠을 자는 것은 몹시 힘든 일로 가능한 한

방을 얻어서 생활한다. 지금 하루 4,000원 짜리 방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일을 못나갈 때를 대비해 건축일로 번 돈을 미리 방값으로 주고 있다.

둘째 유형은 무주거자를 위한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사례조사지인 청량리역 주변의 무주거자들이 이용하는 '가나안 교회'나 영등포역 주변의 무주거자들이 이용하는 '광야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b씨는 올해 24살이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 아버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 돌아가셨다.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누님을 재산을 정리하여 도망간 후로 혼자 떠돌며 생활하고 있다. 주유소,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다가 술을 많이 마셔 몸이 심하게 아프면서 하루는 청량리역 앞에서 넘어져 쓰러졌다. 현재 가나안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간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의 수는 조사 당시(1995년 7월과 1997년 3월) 각각 약 20여명 정도 되었는데 겨울이 되어 거리생활이 어려워지면 더 늘어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일정정도의 규모가 유지된다고 한다. 주로 종교단체 들인 이들 교회에서 생활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무주거자들이라고 하여 누구나 원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시설에서 생활하기 위해 목회자와 일정한 면담을 하고 관례나 혹은 교육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예배를 거의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번 드려야 한다. 따라서 아무 장애나 의무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나안 교회의 경우 무주거자들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 교육은 대부분 기도와 성경의 강연 등으로 이루어

어지고 있다.

세째, 무주거자 의미 그대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울지로 3가 지하철역과 청량리역 주변, 그리고 영등포역의 영등포시장 방면과 대방동 방면을 연결하는 2층 통로를 조사하였다. 주로 지하로 들어가는 계단을 이용해서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 겨울에 난방장치의 환풍기가 설치된 지하보도나 커피자판기 뒤에서 잠을 자는 사람도 있다. 보통 저녁 10시경이 되면서 하루를 어디에서 보내고 오는지 무주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이들은 야간에 술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잠을 청하기도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역의 역원들이 내쫓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그 수가 많기도 하고 이 곳에서 쫓기면 달리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기면서 새벽에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하기 전에 안보이는 곳으로 피하라는 주의만 줄 뿐 그대로 자게 두기도 한다. 대개 이들은 구청 등의 '단속'대상이 되고 단속되면 무주거자 복지시설에 수용되기도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돈이 생기면 일세집을 이용하는데, 그것은 밖에서 잠을 자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노숙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노숙과 일세, 그리고 복지시설의 이용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현재 일세집이나 다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다시 노숙에 처해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3. 복지시설에서의 생활

1997년 1월 현재 무주거자 관련 복지시설은 전국에 모두 39개소가 있고, 수용인원은 13,361명이다⁵⁵⁾. 수용시설 중에서 여성을 위한

것은 36.2%이고, 18세 미만의 부랑아동을 위한 것은 21.6%이다. 서울 시에는 1995년 현재 모두 4,000여명 규모의 부랑인 수용시설이 있는데, 여기서 성인 남성은 2,000명, 성인 여성은 1,200명, 어린이는 8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고, 하루 20-30명씩 입소하고 있으며 15-20명 정도가 퇴소한다. 서울시 전체 예산 가운데 부랑인과 관련해서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50-60억원 정도이다⁵⁶⁾.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였던 서울의 '은평의 마을'은 서울시립기관이고, 전체 경비를 서울시가 지원하며, 단지 운영만 재단법인 '마리아 수녀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조사대상지인 인천의 '은혜의 집'은 사회복지법인 태화회의 산하기관이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약 80%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은평의 마을의 경우 18세 이상의 성인남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전체 수용인원이 2,000명 가량이며, 1996년 7월말 현재 약 1,891명을 수용하고 있다⁵⁷⁾. 인천의 은혜의 집의 경우 성인남녀를 수용하는 시설로서 1997년 2월 말 현재 남자 288명, 여자 105명으로 전체 393명을 수용하고 있다.

무주거자들이 복지시설에 수용·보호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하나는 무주거자들이 생활하기 힘들어지면서 직접 시설에 찾아가 수용을 요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이나 구청 등의 단속을 통해 수용되는 방식이다. 무주거자가 직접 시설을 찾아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이런 무주거자 관련 복지시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이다.

55) (사)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1991.1., "시설일람표".

56) 정종우, 1992, 제6호, 201-219쪽.

57) 이 곳은 부지가 12,263.3평에 연건평이 5,957.6평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곳이다.

예전의 갱생원이라 불리던 시절의 경우 한번 시설에 수용되면, 다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강제로 노동하고, 죽어나가는 사람만도 부지기수였다. 병이 들어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야 했으며, 수용소 안에서 고의로 원생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갱생원에서는 동장이라고 해서 원생들 중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각 층의 책임자를 뽑았는데, 이들이 원생들의 작업수당관리를 하며, 원생들이 반야야 할 수당을 적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그 돈의 일부는 갱생원의 관리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상납하여, 자신들의 일을 무마시키기도 하였다. 또 벌방이라는 것이 있어 조금만 잘못해도 벌방에서 먹지도 못하게 며칠동안 혼자 갇혀있게 되었다.

조사내용에서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무주거자 사이에 퍼져 무주거자들은 시설에 수용되기를 꺼려한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들 중 스스로 시설을 찾아가 수용을 요구한 사례는 E씨, F씨, H씨, L씨, T씨 등 5 사례였다.

H씨는 어려서부터 무류관절염을 앓아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다. 과자 만드는 일 등을 하며 지내다가 요꼬공장에 다녔다. 인형공장에서 약 10년 동안 일하면서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여자와 7년정도 동거를 하였다. 동거하는 동안 여자가 임신을 해도 번번히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그 후 가출하였고, 이로 인해 H씨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 후부터 폭음을 하게 되었다. 얼마 후 무류염이 심해지고, 당뇨로 몸도 안좋아 동생집에서 지내다가 구청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나 처리기간이 오래 걸려 그냥 시설에 보내달라고 하였다.

무주거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사회복지요원과 구청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주로 노숙을 하는 사람이나 걸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단속대상이 된다. 혹은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경우도 종종 단속·수용된다. 이들 중 장기적으로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연고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때에만 시설수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무주거자들의 다수가 이렇게 단속되어 수용된 경우이다. 실제로 이들 중 많은 수의 무주거자들은 다시 퇴소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에서는 연고자가 없거나 확실한 인계자가 없으면 퇴소시키지 않고 있다.

단속이 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최근에 들어서 절대적인 수에서 아직 성인 남성이 많기는 하지만, 가출청소년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여성은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계절적인 특징으로, 봄에는 가출청소년이 많고, 동절기에는 동사할 우려가 있는 노숙자들이 많다. 특히, 1970-80년대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무주거자들을 무분별하게 강제수용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진짜 무주거자가 되기도 할 정도로 수용·격리 위주로 행정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이후 행정지침이 개선되어 강제로 장기적인 수용·보호를 못하게 되어 있으며, 6개월 간격으로 재입소하는 형식으로 그 기간을 연장시키면서 수용하고 있다. 또한 퇴소를 원하면 언제든 퇴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무주거자들은 이런 복지시설을 마다하고 고통스런 노숙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다른 시각도 있는데, 무주거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부랑끼가 있어 한 곳에 정착하거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⁵⁸⁾.

5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7장을 참조바랍니다.

4. 무주거자로 산다는 것

무주거는 단순히 안정적으로 살 집이 없다는 물리적 부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주거자로서의 삶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이후의 삶 전반을 결정짓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외국의 경우처럼 우리 나라에서의 무주거는 다수의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 겪어보게 될 정도로 일반적 현상도 아니며, 그런 경험을 하다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올 수 있을만큼 그렇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도 아니다. 적어도 우리 나라의 경우 한번 무주거자가 되면 거의 영원히 무주거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들을 무주거자로 전락시킨 요인들이 상당히 심각한 원인에 의한 것이며,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정책적 차원의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작용한 상태에서 가정의 해체 등의 원인이 겹쳐짐으로 인해 결과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극심한 좌절과 삶에 대한 포기로 인해 무주거자가 된 이들이 다시 삶의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일단 무주거자가 되어 무주거자로 살게 되면 이미 상실된 의지와 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d씨는 아내와 딸과 헤어진 후부터 거리생활을 시작하며,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었다. 이런 생활로 인해 1993년에는 당뇨와 폐렴으로 입원하였고, 이듬 해에는 간경화로 입원했다. 병원에 있는 기간에는 약도 제대로 먹고 생활도 절제하도록 강제되어 건강상태가 다소 호전되기도 했다.

만, 병원을 나오면 다시 상태가 나빠지고 했다.

e씨는 88년 이혼 후부터 거리생활을 시작했다. 거리생활을 한 지 3년만에 당뇨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병이 심해지면 병원에서, 병이 좀 호전되면 병원을 나와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을 반복했다. 올해에는 썩어들어가는 한쪽 다리를 잘라내어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다.

이처럼 모든 무주거자들은 대체로 한 가지 이상의 중병을 앓고 있다. 치료하기도 마땅하지 않고, 장기적인 치료를 받기는 더욱 어렵다. 노숙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인근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이용하기도 하나 돈이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하여 병을 참고 있기도 한다. 반면 병으로 인해 관련 민간단체나 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기도 한다.

밖에서 잠을 자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다. 노숙의 고통과 그것을 이기려는 음주는 몸을 쉽게 상하게 하며, 그 과정에서 거의 모두가 알콜중독에다 심한 질병을 앓게 된다. 무주거자의 생활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듯,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스스로 무주거의 상태를 즐기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무주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무주거자들은 대부분 한 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그 질병을 고칠 만한 여러 가지 여건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또한 이들 스스로는 완치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듯하다. 오랜동안의 노숙과 질병 등으로 이들의 노동력은 폐질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무주거자들은 하루하루의 생존을 위해 힘겨운 삶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무주거자로 살아가는 과정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점점 없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몇 차례 면접만으로 무주거자들이 현재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일단 무주거자가 되면 대부분 혼자 생활하게 되면서 기존의 사회적인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게 된다. 자주 만나는 사람은 같은 무주거자로서 같이 술 마시는 사람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사이에는 무주거자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나 무료급식소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은 자신의 노동이나 생활을 통해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찾을 만한 계기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을 잃거나 버리고 무주거자가 된 경우에도 그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가족관계였다. 그러나 무주거자 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P씨는 증매로 결혼한 아내에게서 자꾸만 인내가 멀어져 같이 생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혼자 방을 얻어 생활하면서 다른 여자와도 동거하기도 하였다. 아내는 P씨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아들들에게 풀어나갔다. P씨에게는 아들만 삼명제가 있는데, 첫째와 막내는 P씨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며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반면에 둘째는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따뜻하게 대해주어 가끔 만나기도 한다. 같이 살자고도 하지만 이제와서 자식이라고 같이 사는 것은 너무 엄치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P씨 이외에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 어디쯤에 살고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였고, 대체로 많은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런 면에서 B씨는 조금 특별하기도 한 사례이다.

B씨는 형님이 이혼의 충격으로 가출하여 형님을 찾기 위해 헤매다가 복지시설에서 형님을 만났다. 형님의 몸이 완쾌되면 다시 시설을 나갈 것이다.

가족 이외의 사회적 관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무주거자 생활을 하게 되면서 연락을 취하지 않게 되면서 친구나 친척 그리고 가족하고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있다. 그저 우연히 거리에서 만나게 될 경우 인사를 나누거나 술을 먹게 되는 정도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무주거자 생활을 하게 되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 우연히 거리에서 만나게 될 경우에도 상대가 알아보기는 어렵다.

제 7 장 우리 나라 무주거자 문제 해결의 단초

1. 무주거자 재활을 위한 노력들

현재 무주거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노숙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사회복지적, 사회운동적 차원을 벗어나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인간존엄의 문제이다.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자존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소한의 의식주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은 무주거자복지시설과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민간시설들이다. 이 기관들은 일주일에 한번 혹은 하루에 한 끼 등의 식사제공을 하는 단체에서부터 무주거자들을 보호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단체까지 그 역할과 목적이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이들 기관들은 자선적 차원의 의식주 제공을 일차적으로 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무주거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도 많다.

무주거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다. 우선 이들의 경우 삶에 대한 애착이나 의지 등이 좌절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주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오랜기간의 무주거자 생활을 통해 획득된 부랑끼라는 속성으로 인해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무주거자들이 다시 일반 사회인으로 살아가려고 하여도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도 한다. 무주거자생활을 하게 되면서 대다수

의 무주거자들은 주민등록이 말소⁵⁹⁾되어 있다. 주민등록을 다시 복구시키는 것 역시 그리 용이하지 못하다⁶⁰⁾.

따라서 무주거자들을 사회에 복귀시키거나 재활하는 것은 쉽지 않다⁶¹⁾. 일반적으로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은 쇼핑백 만드는 작업을 통해 수당을 저축해주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설의 확충 등 구비되어야 할 요건들이 많다. 또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2. 연구 결과 및 이후 과제

지금까지 본 연구는 무주거자에 대한 제반 측면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무주거자는 빈곤의 한 양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무주거자에 대해 편협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노동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

59) 무주거자들은 불신검문을 받게 될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어 이유없이 체포되기도 하며, 대체로 특별히 저항을 하지 않기 때문에 투옥되기도 한다.

60) 주민등록을 복구하려 할 경우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등에 대한 행정적 결정과 함께 의료보험료의 정산 등이 필요하여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61) 청량리 가나안교회의 노력은 이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사례이다. 가나안 교회의 K 목사는 한 때 무주거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나 종교에 귀의하면서 성직자가 되었다. K목사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청량리 지역의 무주거자들을 돌보고 사회로 복귀시키고 있다. 무주거자를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주로 종교교리에 기반한 교육을 통해 부랑끼를 제거하고, 스스로의 노동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게 하는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이라거나 '가족을 버리고 떠도는 사람'이라는 무주거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이들이 살아온 과정과 무주거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무주거자가 되는 과정에는 경제적인 탈락이나 배제, 제도적인 무관심, 삶에 대한 의욕을 꺾는 사회적 관계 등이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 장애에 대한 차별, 사고나 질병에 대한 사회적 대책의 부재 등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또한 '술이나 마시고 세월을 보내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비난도 무주거자들의 생활상을 보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삶에 대해 좌절하기 전까지 열심히 노동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일단 무주거자가 되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 처하게 되면서, 노숙 등과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등을 통해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무주거자들이 대부분 술을 많이 마시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여러 원인들이 인해 정신적, 육체적인 통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앞 장의 논의를 통해 미국과 영국으로 대표되는 서구선진국의 무주거자 현황과 발생원인, 그리고 일본의 무주거자 현황과 발생원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서구의 경우 무주거자문제가 탈산업사회로의 전개와 맞물려 나타난 빈곤의 확대에 의해 일반 사회인의 경우도 무주거를 경험할 만큼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또한 무주거자에서 다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전환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 무주거자를 사회적으로 탈락한 사람들이거나 책임감 없는 사람들라는 사회적 낙인이 심하게 부여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출가노동을 통해 나이가 들면서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무주거자가 되어 음에 따라 사회적으로 무주거자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이 가해지고 있다. 여기에 사회보장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룩한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해 서구와 마찬가지로의 탈산업사회의 전개에 따른 무주거자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본 사회특유의 가족개념과 노동관계, 그리고 사회보장의 미비는 앞으로 더욱 많은 무주거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무주거자가 되는 특정한 집단이나 특성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심한 편이다. 이것은 고도경제성장과정에서 창출된 풍부한 일자리와 가부장적, 윤리적 성격이 강한 가족관계를 통해 무주거자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일하지 않고 떠도는 이들에 대해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발적으로 무주거를 선택한 사람들이라거나 가족을 버린 무책임한 사람들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런 부정적인 사회인식 때문에 이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무주거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은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도 관련이 크다.

따라서 무주거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와 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부당한 인식을 고쳐가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이미 발생한 무주거자들을 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에 수용하거나, 일반인들의 눈에 안 보이게 하는 정책으로는 무주거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즉, 정상적인 사람이 무주거자로 전락하는 원인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것처럼 질병, 사고, 재해 등에 대한 사회보장책의 미비는 무주거자를 양산하도록 방치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또 가족관계의 문제도 전통윤리의 약화라는 차원의 접근보다는 가난과 질병이 가족해체를 초래하며,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안전망의 설치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의 도입이 필요하다.

결국 무주거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고, 개인의 불행이나 게으름만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없다. 복지정책이란 개인의 불행까지도 사회가 돌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무주거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정책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공동체가 급속히 와해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특히 무허가 정착지의 해체는 이제 빈민들이 이웃의 도움을 받기 어렵게 하고, 주거비의 상승을 통해 생활을 보다 궁핍하게 하고 있다. 이런 현대사회의 이윤추구적 과정을 통해 해체되는 공동체, 가족, 상부상조의 공백을 복지정책이 메워 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미 발생한 무주거자들을 위해서는 수용 일변도의 정책에서 재활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질병, 노동능력,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치료기관 수용, 재활기관 수용, 직업교육기관 수용 등으로 대책을 차등화하며, 이들이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협업적으로 일하면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새로운 가족개념의 개발과 도입으로 이들에게 적절한 안식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종교기관이나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이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야 할 것이다. 결국 정부는 성장을 이유로 이들의 문제를 고의적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제적 위치에 걸맞고, 인간적 자존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주거자 문제에 대한 사회운동차원의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운동의 하나는 무주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운동이다.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무주거자 보호운동이 이미 국제적인 연대망을 형성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에 대해 일반 시민

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회운동가들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선 우리의 시민운동이나 복지운동을 추진하는 집단에서 무주거자 문제를 사회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무주거자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연구 동향 (1)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1)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2)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3)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4)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5)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6)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7)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8)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9)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10)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11)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12)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13)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14)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15)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16)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17)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18)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19)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20)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21)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22)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23)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24)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25)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26)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27)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28)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29)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30)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31)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32)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33)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34)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35)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36)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37)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38)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39)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40)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41)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42)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43)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44)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45)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46)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47)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48)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49)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50)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51)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52)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53)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54)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55)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56)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57)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58)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59)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60)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61)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62)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63)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64)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65)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66)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67)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68)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69)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70)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71)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72)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73)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74)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75)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76)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77)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78)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79)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80)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81)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82)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83)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84)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85)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86)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87)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88)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89)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90)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91)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92)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93)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94)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95)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96)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97)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98)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99)

1980년대 무주거자 문제의 사회적 배경 (100)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강영순, 1996,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도서출판 부스러기.
- 공상길, 1991, '부랑인의 재활서비스에 관한 연구-인천지역 부랑인 복지시설(은혜의 집)을 중심으로-', 단국대 석사논문.
-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1981, 『구결행위자 보호대책』.
- 김범수, 1990, "부랑인 복지시설", 최영섭외, 『사회복지시설론』, 법륜사.
- 김상조, 1994, "시설부랑인에 대한 재활사업실태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논문.
- 김영란, 1988, "성인 남성부랑인의 생활력에 관한 연구", 성심여대 석사논문.
- 내무부, 1975, 『내무부훈령 410호』.
- 노순희, 1990, '부랑인을 위한 사회사업 서비스의 개발에 관한 연구', 숭실대 석사논문.
- 박용일, 1987, "부랑인 단속과 수용(판정)의 문제점-부랑인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지』, 통권 129호.
- 보건사회부 훈령 제523호, 부랑인선도시설 운영규정, 1987
- 보건사회부, 1994, 『생활보호사업지침』.
- 서종균, 1996, "무주거자문제와 대책", 『도시서민의 삶과 주민운동』, 발언.
- 원용강, 1987, "강제노역, 인권유린의 부랑인 수용소", 『신동아』, 통권

330호

- 은평의 마을 현황자료
- 은혜의 집 현황자료
- 이승원 사진집, 1992, 『밤상 공동체 사람들』, 눈빛.
- 임명희, 1994, '목회차원에서 본 알콜중독의 이해와 치료', 신학대학 석사논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7.4, "특집 : 다시 돌아보는 빈민장애우의 현실", 『함께걸음』, 제99호
- 조용호, 1992, "부랑인들의 인생여로", 『세계와 나』, 통권29호.
- 차홍봉, 1987, "부랑인 복지의 실태와 대책", 1987년 춘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토론 자료집.
- 한겨레 21, 1995.7, "위대한 미국의 부랑자들", 제66호.
- 한겨레 21, 1996.4, "빵보다 더 큰 것은 사랑", 제105호.
- 한겨레 21, 1996.5, "나는 해부되고 싶지 않다", 제106호.
- 한겨레 21, 1997.2, "퐁네프의 거지들", 146호.
- 한겨레 21, 1997.6, "구걸도 당연한 직업이다", 제160호.
- 한국도시연구소, 1995, 『한국사회변화와 빈곤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연구소.
- 한국부랑인·아 시설연합회, 1991, 『부랑인의 사회복지』, 1991년 부랑인복지 세미나 자료.
- 한국부랑인·아 시설연합회, 1996, 『21세기를 향한 부랑인 보호사업의 발전적 방안모색』, 제5회 부랑인복지 세미나 자료집.
- 한국부랑인·아 시설연합회, 1997, 『시설일람표』.
- 한국일보, 1996.12.12.

2) 일본 문헌

- 釜ヶ崎面接調査團, 1995, 「釜ヶ崎 面接調査」
- 庄谷怜子, 1988, あいりん (釜ヶ崎)日雇労働者の高齢化と生活問題
- 岩田正美, 1994, 『戦後社会福祉の展開と大都市最底層』, ミネルバ書房
- 宮下忠子, 1995, 『山谷曼陀羅』, 大修館書店
- 森川直樹, 1994, 『實録 ホームレスとは?』, サンドケ-出版局
- 笠井和明, 1995, いわゆる「ホームレス」問題とは, 「寄せ場」第8號, 日本寄せ場學會
- 新宿連絡會, 1995, 「新宿 Homeless : 1995年 新宿野宿労働者の現状と運動の記録」

3) 외 국 문 헌

- Avramov, D., 1995, *The Invisible Hand of The Housing Market*, Feant Brussels.
- Christopher Jencks, 1994, *The Homeless*, Harvard University Press.
- George Fallis & Alex Murray (eds), 1990, *Housing the Homeless and Poor*, University of Toronto Press(Canada/Toronto)
- IJURR 17(3), 'The New Poverty and the Underclass' in Enzo Mingione, Herbert J. Gans Articles.
- Irene Glasser, 1994, *Homelessness in Global Perspective*, G.K.Hall & CO.(New York).
- Jacqueline Leavitt, 1992, "Homelessness and the Housing Crisis", *Homelessness - A national perspective*, (eds) Marjorie J. Robertson & Milton Greenblatt, Plenum Press(New York), Chap.2, pp 19-34.
- Jennifer Wolch & Michael Dear, 1993, *Malign Neglect - Homelessness in an American city*, Jossey-Bass Publishers(San Francisco).
- Joel F. Handler, 1992, "The Modern Pauper - The homeless in welfare

- history", *Homelessness - A national perspective*, (eds) Marjorie J. Robertson & Milton Greenblatt, Plenum Press(New York), Chap.3, pp 35-46.
- Marjorie J. Robertson & Milton Greenblatt, 1992, "Homelessness - A national perspective", *Homelessness - A national perspective*, (eds) Marjorie J. Robertson & Milton Greenblatt, Plenum Press(New York), Chap.27, pp 339-350.
- Mary Beth Welch, 1992, "Homeless but Not Helpless - Squatters take care of themselves and each other", *Homelessness - A national perspective*, (eds) Marjorie J. Robertson & Milton Greenblatt, Plenum Press(New York), Chap.26, pp 323-338.
- Michael H. Phillips, Danial Kronenfeld & Verona Jeter, "A Model of Services to Homeless Families in Shelters", (eds) Jon Erickson & Charles Wilhelm, *Housing the Homeless*, Rutgers(New Jersey), Chap. 24, pp 322-334.
- Michael B. Katz, 1989, *The Undeserving Poor : From the War on Poverty to the War on Welfare*, Pantheon Books(New York).
- Michael R. Sosin, 1992, Homeless and Vulnerable Meal Program Users : A Comparison Study, *Social Problems*, Vol. 39, No.2.
- Morse, Gary A., 1992, "Causes of Homelessness", *Homelessness - A national perspective*, (eds) Marjorie J. Robertson & Milton Greenblatt, Plenum Press(New York), Chap.1, pp 3-18.
- Nancy K. Kaufman, "Homelessness: A Comprehensive policy Approach", (eds) Jon Erickson & Charles Wilhelm, *Housing the Homeless*, Rutgers(New Jersey), Chap. 25, pp 335-345.
- Richard D. Bingham, Roy E. Green, & Sammis B. White (eds), 1987, *The Homeless in Contemporary Society*, Sage Publications

Inc.(California)

Roger Sanjek, 1986, "Federal Housing Programs and Their Impact on Homelessness", (eds) Jon Erickson & Charles Wilhelm, *Housing the Homeless*, Rutgers(New Jersey), Chap. 23, pp 315-321.

Mary Beth White, 1987, "Housing the Homeless: A 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Vol. 1, pp 339-350.

Michael H. Phillips, Daniel Kronfeld, & Verona Jeter, "A Model of Services to Homeless Families in Shelters", (eds) Jon Erickson & Charles Wilhelm, *Housing the Homeless*, Rutgers(New Jersey), Chap. 24, pp 323-334.

Michael B. Katz, 1981, *The Homeless: From the War on Poverty to the War on Welfare* (Pantheon Books, New York).

Michael R. Scott, 1982, "Homeless and Vulnerable: The Homeless Program Users", *A Comparison Study*, Social Problems, Vol. 29, No. 2, pp 131-141.

Moran, Gary A., 1982, "Causes of Homelessness", *Homelessness: A National Perspective*, (eds) Marjorie J. Robertson & Milton Greenblatt, Brunner Press, New York, Chap. 1, pp 3-18.

Nancy K. Kaufman, "Homelessness: A Comprehensive Policy Approach", (eds) Jon Erickson & Charles Wilhelm, *Housing the Homeless*, Rutgers(New Jersey), Chap. 25, pp 325-345.

Richard D. Bingham, Roy E. Green & Sandra B. White, (eds), 1981, *The Homeless in Contemporary Society*, Sage Publications

부주기의 발행일별 연락처

1987년 5월	출판부
1987년 6월	발행부
6월 15일	편집부
발행부	발행부
1987년 7월 15일	1987년 7월 15일
1987년 8월 15일	1987년 8월 15일
1987년 9월 15일	1987년 9월 15일
1987년 10월 15일	1987년 10월 15일
1987년 11월 15일	1987년 11월 15일
1987년 12월 15일	1987년 12월 15일

1. 시작

우리의 인식-- 4장

① 외국의 경우 무주거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관심이 높은 만큼 사회 제반분야의 다각적인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그저 거리에 술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들, 혹은 지하철역 등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라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이 정도의 인식에서 그치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 바쁘고 할 일 많은 세상에 술이나 마시고 길거리에 누워 자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사람이라거나 할 일도 많은 세상에 열심히만 살면 못살게 어디있나?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사람은 도와줄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등의 사회적 비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무책임하고, 무능한 사람들이라는 도와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회적 낙인까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무주거자와 관련된 용어에 잘 반영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이들을 '부랑인'이라 부른다. 부랑인이라는 용어는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에서 '편동편동 놀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 혹은 떠돌아 다니며 난봉짓이나 하는 사람' 등 그 의미가 다소 불량하다. 그래서 부랑인이라는 용어대신 굳이 무주거자라는 용어를 쓰고자 합니다.

2.

우리는 무주거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무주거자가 되었는지 등등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본 연구는 자료동원이나 분석력 등의 한계를 인정하고 많은 것을 보여주지 보다는 한 두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무주거자들에 대한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주거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들이 왜 무주거자가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3. 무주거자들이 살아온 과정

먼저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일반인들과 아무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학력이 낮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학력상승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또 이들은 가게종업원으로, 공장노동자로 열심히 일하였고 그 중에는 기술습득과 목돈마련 등을 통해 자기사업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주택소비과정 역시 특별한 차이가 없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공장의 기숙사는 가게의 뒷방 등에서 생활하였고, 결혼하지 않았어도 개인의 주거공간을 마련하였던 경우는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형제와 함께 살았던 경우이다.

결혼하였던 사례들은 도시의 일반가구들과 비슷한 과정을 보여주며 이들은 소득활동에서의 변화에 따라 주거사정이 악화되면서 무주거자가 되었다.

③ 가족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부모님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계셨던 사례는

단지 4사례였다. 이들은 무주거자가 되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나머지 사례들의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기는 우리 사회의 근현대사와 맞물려 있었다. 우리 나라는 일제와 해방, 6.25, 그 이후로의 가난 등 굴곡많은 역사를 갖고 있다. 그 속에서 특히 6.25는 많은 가정을 해체시켰다.

또 이들은 무주거자가 되면서 자녀들을 아내나 친척, 남에게 맡겨놓거나 어떻게 생활하였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의 가정해체는 역사의 굴곡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이후의 가정해체는 사회적 방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4. 무주거자가 된 원인

1) 경제부문의 변화

① 노력하여도 변하지 않는 고용과 생활의 빈곤, 그리고 불안정

이들의 생활사를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열심히 생활하였다. 그러나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자살한 사고 등을 통해 생활은 더 어려워만 갔다. 그렇게 고용이 악화되면서 생활에 희망이 없어지고, 술을 마시게 되면서 가정에 문제가 되고 무주거자가 되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농입니다.

② 이농 --- 1장

조사대상자들은 모두 90년대에 이농하였다. 농사를 지워도 남는 것도 없고 하여 이농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이농하였으나 나이든 상태에 자리잡기가 쉽지 않으면서 무주거자가 되었다. 사실 우리 나라의 도시화과정이나 이농은 농촌의 피폐로 인해 이루어지는 경향으로 90년대인 지금까지도 그 추세가 완만해지지 않고 있다.

③ 기술축적과 습득의 어려움

사회는 끊임없이 변하나 이런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맞춰가기란 쉽지 않다. 우리 나라는 재교육이 개인의 몫으로 남겨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④ 사업실패와 그 충격

기술도 습득하고 목돈도 마련하여 사업을 하였다가 실패한 사례들이다. 이들이 실패한 것은 자본이 많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나라 산업의 문제, 특히 하청업체의 확산과 원청업체의 횡포, 원청업체의 부도에 따른 연쇄부도 등과 건설업의 구조적인 문제 등이 맞물려 발생하였다. 또한 정치적 변화에 따라 고용이 악화되고, 사업도 실패한 사례들이다.

⑤ 재산상의 손실

재산을 많이 날리게 되면서 화김에 술을 마시고, 가족에게 폭행하기도 한 사례

2) 노동능력의 상실

① 질병, 정신질환, 알콜중독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상의 미비로 인해 질병이나 정신질환, 알콜중독에 걸릴 경우가 산을 탕진하게 되거나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곧바로 무주거자가 된다. 열심히

생활하던 와중에 갑작스런 질환은 일반인을 최악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다.

② 장애우의 문제 -- 1장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버림받은 삶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등으로 장애우가 되고 이들이 무주거자가 되는 사례들이 많다.

③ 교통사고 -- 1장

현대사회의 필수품인 자동차가 가져온 사회적 문제는 수치상의 비율이 아니다.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게 되면서 겪는 아픔은 부상자 가족에도 마찬가지로이다.

④ 산업재해 -중복재해의 문제 -- 2장

산업재해는 일반적으로 영세사업체에서 많이 일어나고 이런 곳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일반가구들은 언제나 재해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산재를 통해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무주거자가 된다.

3) 가정의 해체

모든 무주거자들은 궁극적으로 가정이 해체되면서 무주거자가 되었다. 우리 나라는 가부장적 사고와 윤리적 도덕성이 높아 대다수의 가족은 희생을 감내하면서 위기에 처한 가정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올수록 이런 희생은 정말로 희생으로 여겨지고 개인이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해체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고, 무주거자가 될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

① 미혼으로 살다가 형제나 부모의 문제로 가정이 해체된 사례들 역시 형제가 자살하거나 등으로 해체되고,

② 아내가 죽으면서 곧바로 가정이 해체된다.

③ 개인이 감당하면서 살아가던 중 잠재적 욕구의 일탈로 나타나는 춤바람과 폭음과 폭행 등으로 가정이 해체된다. 이들의 경우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음, 사업실패 등 개인의 일탈을 자극하는 요인들이 작용

④ 본인의 가출한 사례도 있다. 이들은 노동능력이 상실되면서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이들의 생활모습 -- 3장

① 노동과 벌이 - 많은 사람들은 무주거자들이 구걸하면서 살아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삶의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한 이들은 오랜동안 뻘뻘스러워야 하는 이런 의지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또 장애인이라면 구걸해도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별 소득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죽지못해 살고, 술과 더불어 생활한다. 그러나 사람이 쉽게 죽어지지 않는다. 무주거자로서의 삶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교회를 들거나 일정치 않지만 노동하면서 돈을 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관심은 부재하다.

② 주거 - 이들은 일세집에서 자거나 민간단체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거나 노숙한다. -- 1장, 노숙 4장

③ 시설에서의 생활 - 직접 수용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진수용되고 적응하여 살아간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단속을 통해 수용된다. 이것이 우리 나라 정책의 전부이다. 단속과 시설수용, 무주거자들 사이에는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 -- 1장

④ 무주거자로 산다는 것 -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포기된 삶은 질병투성의 몸뚱아리로 남는다. 사회와의 연결은 끊어진다. -- 1장

작년에 통과된 시체해부보전법으로 무주거자들은 죽은 뒤에 합법적으로 해부될 수 있게 되었다. 주민등록말소의 문제로 국민아닌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기본적인 사회보호나 의료혜택도 받을 수 없다.

3장) 외국의 경우 무주거자는 일반적인 사회문제이며, 언제 내가 처하게 될지도 모르는 문제라고 여겨질 정도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많고,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진다.

1장) 가까운 일본의 경우 출가노동이라는 형태가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외국의 경우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잘되었기 때문에 젊은 층이 많다.

6. 무주거자에 대한 대책

① 정부의 대책 --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을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책은 시설수용이 전부이며, 그나마의 예산도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시대이기 때문이다. -- 4장 민간의 지원 2장

② 재활을 위한 노력 -- 1장

무주거자에 대한 노력은 재활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한 교회의 목사님은 전도와 교육, 노동과 정성으로 재활을 위해 노력한다.

사회인이 되기 위해 호적이 필요.

우리 나라의 경우 특별한 유형이나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적 배려나 장치가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 무주거자가 될지 모른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전산업, 산업, 탈산업 등이 혼재되어 있어 무주거자의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겪어 온 모든 문제는 곧 무주거자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무주거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힌 것은 그동안의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해 창출된 많은 일자리와 우리 사회의 가족윤리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저성장과정에 접어들면서 실업이나 고용위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정책의 부재는 개인적인 사건과 사고를 통해 언제나 무주거자가 될 수 있으며, 현대의 느슨한 가족윤리는 이를 현실화시켜준다. 그러면 무주거자에 대한 방지가 가족윤리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현대의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그 보다는 대안적인 가족형태의 개발과 보급, 사회의 책임의식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들도 삶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들의 고통을 나눠줘야겠다.

